

한마음한몸



2017 가을호 | vol. 35

One-Body One-Spirit Magazine Fall

생명나눔의 주인공, 지금 그곳의 당신입니다



한마음한몸

조혈모세포 기증 특별기획

- 3 생명나눔의 주인공, 지금 그곳의 당신입니다

함께해주세요

- 12 멕시코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현장 속으로

- 13 네팔에서의 16일, 그 감사의 여정

나누고 싶은 글

- 14 사랑하는 내 손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7 재능을 기부하면 더 많은 이가 행복해집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 18 누군가의 인생을 후원하는 삶

-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22 한마음한몸 새 소식



커버스토리

“제 육신의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난 9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에 봉사자로 참여한 박소윤 양은 이번 기회에 기증 신청에도 동참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통권 35호 | 2017년 가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7년 가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facebook.com/oboscorea

 onebody_one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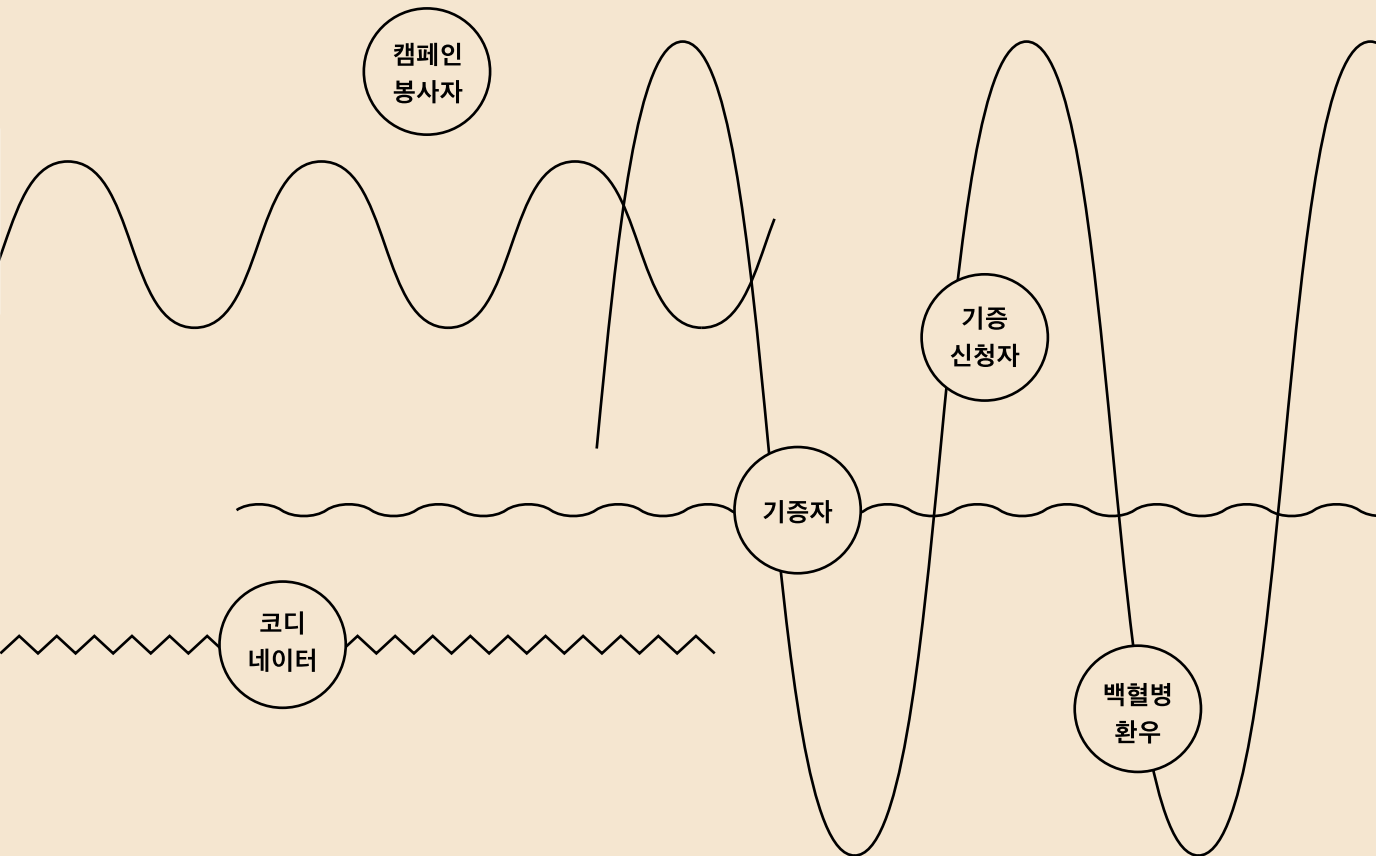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

특별기획

생명나눔의 주인공, 지금 그곳의 당신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챙겨주고 싶은 자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강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슈퍼히어로같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역할이 모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점에 있든,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천금보다 귀합니다.
지금 그곳의 당신, 지금 여기의 우리 모두가
생명나눔의 주인공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어요



서울여대 가톨릭학생회 대표 박소윤 씨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서울여대 가톨릭학생회 '작은 자매' 캠페인 봉사자

지난 9월, 이제 막 개강한 서울여대 캠퍼스는 아침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그리고 서울여대 가톨릭학생회가 함께 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박소윤 학생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인상의 박소윤 학생은 더운 날씨에도 캠페인 조끼를 덧입고 더 많은 학우들이 조혈모세포를 알 수 있도록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진·현장취재: AVEC studio

안녕하세요, 우선 한마음한몸 독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가톨릭학생회 '작은 자매'의 동아리 대표이자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윤 세라피나라고 합니다.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나요?

학기가 바뀌면서 동아리의 2학기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대표였던 친구와 함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캠페인 일정을 조율하고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학우들이 캠페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활발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학우가 있었나요?

우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이고 기증 희망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캠페인 안내 문구를 보고 흔쾌히 관심가져 주시고 부스에 다녀가 주신 모든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리 홍보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주신 분과 자신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씀해주신 학우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캠페인을 통해 단순히 기증 희망 신청자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께 다시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증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기부와 기증의 문화가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본인도 직접 기증 희망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회가 닿을 때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꼭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번 캠페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기쁠습니다. 간단한 신청을 통해 제가 가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제 육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한 번 들어보실래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골수 이식보다 훨씬 쉬운 방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들

이날 서울여대 캠퍼스에서 총 52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19명이 장기 기증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기증 신청을 해주신 서울여대 학생 및 관계자 여러분, 캠페인에 발벗고 나선 서울여대 가톨릭학생회 '작은 자매',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본부 각 부서의 직원들까지.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3mL의 채혈을 진행하는 모습

기증
신청자

꼭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서울여대의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자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3mL의 채혈도 마쳤습니다.
조혈모세포에 관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배경은 가지각색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여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현장취재: AVEC studio



“채혈만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론영상학부 1학년 전원하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돕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환자를 찾을 확률이 2만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일치하는 분이 계시면 신기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디지털미디어학과 2학년 정보람

“교수님 중 한 분께서 실제로 기증을 하셨고, 교양 수업 시간에 조혈모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지내던 분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바로 신청했습니다.”

식품공학과 3학년 김도이

“헌혈이나 기부에 대해 생각만 하고 직접 참여해 본 경험도 없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채혈할 때 두려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기부와 기증을 늘려가고 싶어요.”

행정학과 2학년 정혜주



“평소 헌혈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저없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경영학과 1학년 황선진



“조혈모세포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백혈병을 앓았던
친구가 있었고, 검사를 위해 채혈을
했던 적도 있고요. 기증 신청한
조혈모세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영상학부 3학년 김솔아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기증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장기 기증 신청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과 2학년 김나영 소하 데레사

“지금 백혈병 투병 중인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여서
백혈병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조혈모세포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오늘 신청한 것이 꼭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학과 4학년 이진경



“저희 둘 다 조혈모세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지만, 채혈하는 동안 아주
잠깐 따끔할 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언론영상학부 1학년 호현지(왼쪽),
조윤진(오른쪽)



“제가 속한 동아리의 언니가
조혈모세포 기증과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관심있게
들었어요. 막상 기증 신청을 하려니
어딘가에 가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잊고 지내다가, 학교 캠퍼스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바로 찾아왔어요.”

국어국문학과 2학년 김은혜(왼쪽)

“기증 신청을 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
기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신기하고 뜻깊을 것 같아요. 저의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한비(오른쪽)

맞는 사람이 생기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세 번째 주인공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형욱자 코디네이터

수천내지 수만분의 1.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매칭되는 사람들 중 실제 기증이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30~40%에 그쳐, 끊임없는 연락과 설득,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조혈모세포 코디네이터입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형욱자 코디네이터에게 기증 신청 이후부터 실제 기증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 등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초기 기증자 검색부터 이식기관과 채취기관 사이에서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정합니다. 채혈, 주사 투여 등 간호사로서의 업무도 동반합니다. 특히 기증자들에게 조혈모세포와 기증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발생 가능한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더욱 성숙하고 안전한 기증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필요한

질병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백혈병은 혈액 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한 암으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어 제기능을 못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혈액암은 혈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암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혈액암에 백혈병이나 기타 혈액 관련 질환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 주인공

조혈모세포 기증자 백수옥, 최우중

말이 필요없는 영웅, 조혈모세포 기증자(공여자)는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신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기증이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생한 소감을 듣기 위해 실제 기증자 두 명의 인터뷰 일부를 담았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요청 연락을 받았을 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백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국에 저 포함해서 세 분이 일치하는데 저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혜자가 50대 남성분이셔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100세 시대에 50세라면 정말 살아갈 날이 많은 거잖아요. 그분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찬 일이지요. 물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아주 반가워 하시지는 않았지만, 기증 서명 자체가 제가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의 기증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채혈된 기증 희망자의 혈액의 HLA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데이터화 되어 저장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32만 건 정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누적되어 있고,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면 32만 건 이상의 유전자 정보 중 나이, 성별, 혈액형, 몸무게 등을 고려하여 앞 자리를 일치하는 공여자(기증자)와 매칭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식 요청을 위해 많은 분들을 설득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상당수의 기증 희망자 분들은 헌혈처럼 내가 아니면 다른 기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때는 환자분의 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왜 공여자를 찾을 수 밖에 없는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지 않은지, 환자가 이식을 받지 않으면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고 기증 희망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환자는 완치될 수 있나요?

조혈모세포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식이 완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치 확률을 결정하는 데에는 환자의 나이, 병명(특히 질환이 아닌 경우), 컨디션, 항암치료 이력, 혈액암 외 질병의 유무, 공여자와 유전자 일치 여부, 공여자의 나이, 성별, 혈액형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 가장 안타까울 때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이식 받은 환자가 이식 후 완치가 잘 되어 퇴원했다는 소식을 공여자 분께 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식 날짜 가까이 가서 환자분이 사망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되어 이식이 취소됨을

공여자 분께 알려드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기증자 연락처가 없어 기증 여부의 확인이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락이 가능한 가족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증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호자 분들의 심정은 알지만 설명드릴 기회조차 없이 종결되는 케이스로 인해 가끔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증 신청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설마 나랑 일치하는 환자가 있겠어?’라는 생각 보다는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꼭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증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증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대가 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환자 분들을 대신해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❶ 저 외에 맞는 다른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증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기증 받을 아이는 열 살 정도 된 남자 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조혈모세포 채취에 관한 설명을 들으니 제게 부담이 될 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흔쾌히 동의해줘서 바로 다음 날 하겠다고 했죠.

막상 병원에 가니 어땠나요? 무섭지는 않았나요?

❷ 무섭지는 않고요. 정말 신났어요(웃음).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 VIP 병동에 입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별한 경험을 할

생각에 너무 즐거웠어요. 밥도 너무 맛있었고요.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간식도 가져다주셨어요. 침대도 폭신해서 잠도 잘 잤고요. 기증 걱정은 없었어요.

❸ 저는 정말 별로 큰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아프거나 힘들었으면 스스로도 큰 일했구나 싶을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잘 쉬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당부 한 마디 해주세요.

❹ 또 기증 요청이 와도 전 기증할 것 같아요. 저로 인해 꺼져가는 생명의

촛불이 살아난다면 그분께도, 저에게도 축복이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은 축복인 것 같아요.

❺ 기증 자체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힘들다던데’ 하면서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 기증자의 전체 인터뷰는 각각 한마음한몸 2016년 3월호(백수옥), 2017년 봄호(최우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번 째 주인공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백혈병 환우 신석호님

지난 9월, 한 환우가 아내와 함께 외래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았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그는 올해 초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진단에서 수술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본부 환우지원 담당자는 이런 경우를 기적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옆구리가 살살 아팠는데,
병원에도 안 가려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가봤어요.”

백혈병 환우 신석호님

백혈병이 어떤 병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건강만큼은 자신있었던 신석호(54)님.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간 그는 혈액검사를 권유받았고, 그 결과 ‘전구체 B-세포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으로 진행된 병은 촌각을 다투 정도로 신석호님의 몸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나쁜 혈구가 엄청 빠르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피를 걸러내면서 치료를 했어요.” 아내 박자영님(64)이 말했습니다.

백혈병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하지만 수천내지 수만분의 1이라는 가능성을 기다리는 일은 환우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딱 맞는, 그중에서도 기증을 허락한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환우는 온몸에 퍼진 병과 싸우며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석호 부부 역시 기약없는 치료를 견디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신석호님은 수술 전에만 6차의 항암치료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술 이후 통원하며 몸을 회복하는 사이 같은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한 환우는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 몇 개월만에
공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박은미씨 환우지원 담당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많은 환우를 만나 온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보통 기약을 알 수 없고, 몇 년씩 기다려도 공여자를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신석호님은 아주 드물 정도로 빠르게 유전자형(HLA-type)이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공여자는 선뜻 조혈모세포 이식을 결정했고, 올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신석호님의 몸은 갓난아기처럼 바뀌었습니다. 혈액형이 O형에서 공여자와 같은 B형으로 바뀌었고, 소아마비, 수두 예방주사 등 신생아용 예방접종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하고 항암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이제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겪어낸 신석호님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조금 생겼습니다. 고단한 치료와 수술 기간을 어떻게 견뎌나는 물음에 그는 “나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환우의 아내인 박자영님은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으며, 특히 아무런 댓가없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준 공여자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치료비 지원, 모 방송사의 지원, 친인척들의 작은 도움, 공과금의 부담을 줄여준 주민센터의 도움까지 많은 나눔을 통해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회복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건강해져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신석호님이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도대체 기증자가 누구십니까?
앞에 계시다면 옆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신석호님의 아내 박자영님

조혈모세포 이식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과 싸우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누군가의 용기로 지난 한 해 동안 약 500여 명의 환우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석호님에게 일어난 기적이 또 다른 백혈병, 혈액암 환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에 동참해 주세요. ☺



“이름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 문의

가톨릭생명나눔센터

장소: 명동성당 1898광장 지하 1층
문의: 1599-3042

함께해주세요

멕시코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멕시코 지진피해 긴급구호 특별모금
9. 22. ~ 10. 20.



연이은 지진과 태풍으로

400명 이상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지각활동이 가장 활발한 환태평양 지진대 '불의 고리'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지역에서 8.1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100년 만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치아파스 주에서 남서쪽으로 137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200명, 사망자는 98명에 이르며, 약 2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진앙에서 가까운 오악사카 주와 치아파스 주는 빈민 지역이라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피 중이며,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현지 경찰과 군인, 구급대원이 투입돼 생존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재민을 위한 비상식량과 식수 등 구호물품도 긴급 조달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새로운 지진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황은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강진 하루 만에 허리케인 카티아(Katia)까지 상륙하여, 2명이 산사태로 사망하고 7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9일 오후 멕시코시티 남동쪽 푸에블라(Puebla) 주 인근에서 또 다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3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매몰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멕시코 카리타스는 오악사카와 치아파스의 교구 카리타스팀과 함께 식량, 식수, 의약품 및 기타 생활필수품을 배포 중이며 노르웨이, 독일 등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과 함께 지진피해 재건복구를 위한 사업 구상을 논의 중입니다. 본부는 멕시코 카리타스와 연대하여 피해 지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주민들이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모아주세요.**

*본 상황보고서는 국제카리타스와 UNICEF, 기타 외신(BBC, CNN, AFP, Financial Times)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9월 25일 작성되었습니다.

멕시코
지진피해 긴급구호
특별모금

•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ARS 060-700-1117 (한 통화에 3,000원)

| 후원문의 02)774-3488 |

네팔에서의 16일, 그 감사의 여정



연초롱 카실다
띠앗누리 22기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23기
16명은 지구촌 이슈인 연대성, 빈곤, 인권,
환경이라는 주제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지난 7/24(월)~8/8(화) 15박 16일
일정으로 네팔 포카라시 따레빌학교에서
현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지난 5월, 띠앗누리가 네팔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나는 좋은 기회에 동참하고 싶어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띠앗누리 23기 단원이 되었다. 현지 활동을 위해 7월 한 달간 주 1회 배움터가 진행 됐다. 빈곤, 인권, 환경, 연대성 등 지구촌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원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다. 네팔에서 아이들과의 문화교류 활동으로 진행할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바쁘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날이 다가오자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드디어 네팔로 향하던 7월 24일, 부슬부슬 비가 내렸고 우기인 네팔의 날씨도 좋지 않다는 소식에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올렸다. 기대와 걱정 속에 도착한 네팔의 첫인상은 평화로웠다. 옛 기차역 같은 모습의 공항은 긴장한 우리를 편안하게 맞아주는 듯했다.

따레빌학교에 가기까지 카트만두에서 하루를 보내고, 현지 활동이 진행될 따레빌학교로 출발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8시간을 버스로 이동한 후, 따레빌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버스로 갈아탔다.

돌길을 올라가며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버스의 좁은 길옆으로 한 뼘도 안 될 거리에 벼랑 끝이 보였다. 올라가고 있는 이 길이 무서워서인지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돼서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눈물이 났다. 온전히 느끼고 가라는 수녀님의 얘기를 되새기며 마음이 진정될 즈음 따레빌학교에 도착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였고, 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생활하게 될 교실도 둘러보았다. 떼제로 낮은 곳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따레빌학교에서의 생활

따레빌학교의 일과는 아침체조로 시작된다. 그 사이 식사조의 아침준비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고 오전 작업을 시작한다. 거머리를 피하려고 스타킹에 양말, 장화, 토시, 장갑까지 단단히 준비하고, 따레빌학교의 시바야 선생님 지인인 김씨 아저씨 택의 잡초제거나 돌 나르기를 도와드렸다. 김 아저씨는 네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팔어도 많이 알려주셨다.

점심 미사와 식사 후에는 아이들과의 문화교류가 시작된다. 4개 반이 두 시간 동안 조별활동을 진행했다. 소통의 한계가 있어서 종종 우리가 준비한 활동이 아이들에 의해 재창조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감사하기도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떼제 기도를 함께 드린다. 처음에는 내 얘기를 한다는 게 불편했는데 하루하루 익숙해지면서

떼제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하루도 정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참 좋았다.

어느새 작별 따레빌학교에서의 생활은 불편했지만, 우리는 어느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날씨도 잘 따라주어 다들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소통에 여유가 생기고 문화교류 활동에도 더 열정이 생겨날 때쯤, 이곳의 생활은 마무리되고 있었다.

송별회가 있던 날, 우리는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나눠주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축복을 상징하는 티카와 흰색 띠를 우리에게 해주셨고, 감사의 편지도 전해주셨다.

감사 가득한 나날들 15박 16일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그곳의 날씨, 풍경, 사람들 모두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말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해를 비춰주시고, 쉬는 시간에는 비로 식혀주셨다. 작은 탈은 있었지만 크게 다치는 일 없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누고 싶은 글

사랑하는 내 손녀, 어디 있느냐?

김00 (익명)

본 수기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직면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이루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한 ‘자살 사별자 수기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입니다. 이 수기의 나눔이 자살 유가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밑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기를 게재할 수 있게 해주신 중앙자살예방센터, 수기 응모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15년 7월 00일 아침 8시

“할머니 지금 버스 탔어요.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응, 그래. 우리 진아(가명), 얼른 오거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은 손녀가 여름방학 후 일주일 동안 보충수업을 마치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홍성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손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인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다는 것은 모두 다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7살 때, 우연히 접한 승마에 꽤 흥미를 가져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나들이 가듯 승마장을 다녔습니다. 진아가 말을 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학입시를 마사학과로 준비할 정도로 재능 있었던 우리 진아.... 우리 가족의 보배인 진아가 돌아오는 그날, 할머니인 저와 할아버지, 아빠, 고모, 사촌동생이 눈이 빠지게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집으로 가족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진아 아빠인 제 아들이 경찰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진아가 왜?’

‘방금 전 집에 오겠다고 전화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결국 버스를 타고 오겠다던 손녀와의 대화가 마지막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아는 집이 아닌 천국행 버스를 탔나봅니다.

저는 충격에 실신하다시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진아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대며 진아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진아의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고작 15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구나? 그만 큼 너도 이들에게 사랑을 주었겠지? 나의 손녀, 참 잘 살았구나. 기특하구나. 나의 사랑, 나의 손녀 진아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은 장례기간 동안 함께 밤을 새며 아이의 마지막 작별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손에 진아가 잠든 관이 들렸습니다. 진아는 친구 300여 명의 환송을 받고 미사와 성가를 들으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자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하늘에 닿을 듯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

제대로 먹지도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뜬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더니 사고 후 17일 만에

8kg이 빠졌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은 그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남은 사람 중 누군가 무너져 내리면 모든 가족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살 사별자는 고인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3개월 동안 날마다 진아가 있는 추모공원에 찾아가 녀석과 대화하고 쓰다듬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진아야, 할머니 왔어.”

“너 어디에 있니?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엄지 척 해줬잖아.

오늘은 그 엄지가 너무 그림다.”

“오늘은 내 볼에 뽀뽀하던 그 느낌이

생각나네. 어루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내 사랑아, 보고 싶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 또 만나자...”

시간이 흐를수록 제 건강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읍내 정신병원에 방문해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며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유가족 상담을 받아보겠다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제 아들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 뭐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부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조모임에 참석했습니다. 2016년 2월, 손녀가 하늘로 간 지 7개월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보니 유가족들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농사나 여행이야기 등 일상에 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떠난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한 분 한 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물론 그날 모임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한 달 용기 내어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10개월 이상을 참석했네요. 같은 상실감으로 힘들어 하는 자조모임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공감을 나누고, 위로 받으며 상처의 쓰라림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아가 떠난 후 또 하나의 선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수십명의 딸이 생긴 것이죠. 어버이날, 명절, 진아 생일이 되면 녀석을 잊지 못하는 친구, 선후배들이 무리를 지어 집으로 찾아옵니다. 반가움의 웃음과 그리움의 눈물이 뒤범벅되는 시간들입니다. 유가족과의 만남, 진아 친구들과의 만남... 이 모든 인연은 그토록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우리 손녀가 맺어주었습니다. 그 인연들이 우리 가족에게 삶의 이유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왜?’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떠난 진아를 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 그대로 마음에 새겨놓고 한결같이 품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잊어야 하는 존재도 아니고, 잊으리라고 마음 먹는다고 잊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말을 타며 행복해 하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가끔 승마장을 찾아가고, 매주 추모공원에 가서 사진을 보면서 ‘천국으로 유학을 보냈지. 진아는 죽은 게 아니야’라고 중얼거립니다. 잠에서 깨면 내 가슴속에 있는 진아를 쓰다듬으며 “진아야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진아야! 너를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정을 양식 삼아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현실감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런 삶이 최선인걸요.

누구에게나 이처럼 예측 못함 헤어짐으로 가슴 찢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행여나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살 사별자가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마음껏 우시고,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도움 받기를 두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마음을 열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와 우리의 손을 잡아보시겠어요? 길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슬픔을 나눌 수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나누며, 함께

헤쳐 나가 보아요. 우리 힘과 용기를 냅시다!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진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승마선수 되어 성공하면 잘 키워준

할머니한테 2층집 지어준다더니 지금

하늘나라에 예쁜 2층집 잘 짓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정말 기대하고 있단다.

이다음에 할머니가 천국 갈 때

마중 나와 주지 않으련? 나보다 네가

먼저 걸어간 길이니까, 할머니 길 잃지 않게

안내해줄거지?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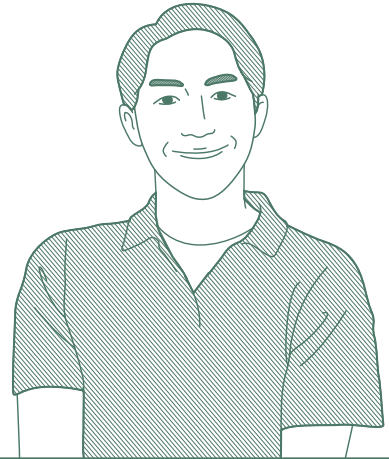
못 다했던 많은 일들 함께 하며 잘 살아보자.

진아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 너를 그리워하는 할머니가 -

재능을 기부하면 더 많은 이가 행복해집니다

이성은 야고보 님



※ 본 콘텐츠는 가톨릭 비타콘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번역, 통역 등의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이성은 (야고보) 님입니다. 그는 2009년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요청한 지구시민교육 자료 번역에 재능을 기부했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통역, 번역 일이 생기면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의 100일 잔치 비용을 기부(생애첫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함께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잘하는 것을 나누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인 이성은 님에게 나눔은 익숙한 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그걸 아껴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쓰지 않는 것을 모아 팔아서 기부하는 것, 소액기부도 활성화 돼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성은 님은 한국에서의 나눔은 다소 의무적이고 강요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액기부보다는 금액이 크면 좋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유독 한국에서는 소액기부보다는 유명인들의 고액기부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이목을 끄니다.

“한번은 제가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께 10만 원을 드리면서 기부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10만 원은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만큼 캐나다는 소액으로 기부하는 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기부부터 합니다.”

이성은 님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갈비뼈의 살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원래 받은 것은 110인데 100은 자신이 갖고 남은 10은 그분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 신자인 아내와 함께 월급 10% 이상을 교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면 안되듯이 나눔도 기복 나눔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복 나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만 나눌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은 님의 꿈은 아내와 함께 해외선교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공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곳에 건축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선교가 아닐까요. 물질, 자신의 능력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해외선교를 꿈꾸는 아내와 함께 저희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

나눔가게·나눔기업

누군가의 인생을 후원하는 삶

나눔가게·나눔기업 249호점

황금가든

대표 이병주 안토니오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8길 8-1

두산상가 1층(행당동)

문의 02)2296-7887



YOLO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You Only Live Once(한번뿐인 인생)’이라는 이 말은 세상살이가 어려운 젊은이들이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돈이 많으면 좋은 차, 좋은 집, 여행, 맛있는 음식에만 쓰는 것 같아요. 모두 자기 위주의 소비죠.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말의 울림은 그래서인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나눔러(?) 이병주 안토니오 님은 행당역 앞에 위치한 249호점 황금가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가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당동 성당에 다니고 있는 이병주 안토니오입니다. 식당을 운영한지는 28년 됐습니다. 한때 직원을 15명을 두고 할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지금은 행당동 성당 바로 밑에서 아내, 직원 한 명과 함께 소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본부로 처음 기부를 해주셨는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처음 본부를 알게된 건 후보 간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 기관을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 후원 외의 나눔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0년째 3명의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아나요. 아이들 사진은 늘 지갑에 넣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꺼내서 '하느님,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18년째 장기기증 운동에도 후원하고 있고 장기기증(각막) 신청도 했습니다. 저는 죽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후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 모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사랑의열매에도 매월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디딤돌에서 지정해주는 소외된 기관, 단체 구성원들 40여 명(한달에 두 번 20여 명씩)에게 매월 불고기를 대접합니다.

나눔가게로서 꾸준히 기부해주는 일 외에도 정말 많은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계신건가요?

저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평화시장 옷가게에서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츠,

정장 바지도 각각 1만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싸고 품질 좋은 옷이에요. 내가 쓸 돈을 아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배고픈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도우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호화롭게 사는 것도 당시 그 순간만 좋은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돈이 많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뒤를 돌아봐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평평 쓰면 인생은 허무해지고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꿈은 후원하는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곤드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은 개인적 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곤드레밥을 팔고 있는데 잘나갑니다. 전문점을 만들어서 전국에 체인점도 만들고 싶습니다. 곤드레는 현재 영월에서 공수해오고 있는데요. 도시 농촌간의 상생 모델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눔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불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친구들의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그들이 불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나눔은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슈퍼에서 박하사탕 한 봉지만 사서 근처 요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박하사탕 하나씩 나눠 드려보세요. 어르신들 30여 분이 박하사탕을 몰고 있는 그 5분 동안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 사실 이걸 핑계 같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나눌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걸요. 나눔은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실 한마음한몸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요즘 신자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세상은 오히려 각박해졌어요. 신자들만이라도 나누면 이렇게 각박하지 않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돈이 많으면 좋은 차, 좋은 집, 여행, 맛있는 음식에만 쓰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위주의 소비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나눔가게·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규모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명다솜

생애첫기부

강수진 마리스텔라 2016.08.12생 父 강호진 母 조아현 | 강시는 아네스 2016.04.20생 父 강도원 母 정인영 | 강시호 반헨시오 2016.04.20생 父 강도원 母 정인영 | 강유준 2015.07.29생 父 강현우 母 김용정 | 금다윤 글라라 2016.07.21생 父 금대중 母 윤해은 | 김가을 2016.06.13생 父 김동민 母 한지수 | 김규린 라파엘라 2012.08.06생 父 김종민 母 노미리 | 김나은 마리스텔라 2016.11.02생 父 김동현 母 노경희 | 김도연 엘리사벳 2017.07.15생 父 김준식 母 유승혜 | 김도윤 2016.08.18생 父 김종길 母 고예진 | 김도형 레오 2016.06.12생 父 김경준 母 임선민 | 김도형 안토니오 2016.06.13생 父 김재현 母 임은진 | 김리아 2016.06.24생 父 김도영 母 양소희 | 김리아 스텔라 2016.06.15생 父 김용민 母 김경화 | 김민서 2016.07.20생 父 김대현 母 김재림 | 김민서 세레자요한 2016.07.02생 父 김현진 母 양정운 | 김비아 스텔라 2016.09.08생 父 김주영 母 강구연 | 김서운 마카엘라 2016.06.09생 父 김용재 母 이현정 | 김세아 소피아 2014.06.23생 父 김덕규 母 이희진 | 김수현 마르티노 2016.06.16생 父 김종오 母 류혜정 | 김슬아 2016.07.15생 父 김준영 母 김재남 | 김시우 도미니코 2016.08.14생 父 김현철 母 심은혜 | 김에서 바실리아 2001.01.06생 父 김준현 母 노자영 | 김예현 2016.05.24생 父 김민욱 母 조경희 | 김은비 사도요한 2016.08.03생 父 김동환 母 최수진 | 김재원 2016.08.12생 父 김용생 母 김민정 | 김지오 2016.08.05생 父 김태호 母 이재영 | 김지원 라엘 2017.03.28생 父 김정철 母 김은정 | 김지원 세레자요한 2013.06.20생 父 김정민 母 최유리 | 김지후 2016.08.14생 父 김현석 母 황지숙 | 김지훈 2016.08.04생 父 김준곤 母 허아영 | 김태건 2017.05.18생 父 김준홍 母 최윤정 | 김태연 2016.08.25생 父 김유수 母 김경숙 | 김하린 2016.08.16생 父 김양훈 母 송명선 | 김하준 요셉 2008.11.03생 父 김동혁 母 박희원 | 김호은 마리스텔라 2016.08.15생 父 김홍업 母 김신 | 김한 대건안드레아 2016.07.05생 父 김성민 母 정유리 | 류하린 2016.08.24생 父 류장원 母 임원하 | 명다솜 2016.09.02생 父 명준우 母 한정희 | 모하은 엘리사벳 2011.05.30생 父 모정훈 母 신유진 | 문서원 바오로 2015.10.02생 父 문성민 母 최혜영 | 문에서 2017.02.26생 父 문현일 母 이호주 | 문찬우 요셉 2012.07.09생 父 문성민 母 최혜영 | 민수진 2017.03.14생 父 민홍기 母 이보민 | 박서우 2011.07.20생 父 박현석 母 이진혜 | 박서하 2016.08.16생 父 박주원 母 김현정 | 박선하 2017.05.07생 父 박대순 母 장보미 | 박솔미 스텔라 2015.12.23생 父 박성혁 母 황지영 | 박솔하 라파엘라 2016.08.29생 父 박찬민 母 김선희 | 박연준 2016.07.19생 父 박문수 母 정현정 | 박영서 2016.08.11생 父 박인호 母 이유나 | 박재민 2017.04.07생 父 박철수 母 조근혜 | 박지현 2016.07.26생 父 박준석 母 윤홍정 | 박재준 2016.09.09생 父 박영남 母 유진희 | 박태준 2015.07.08생 父 박현석 母 이진혜 | 박하윤 2016.05.12생 父 박성민 母 안홍은 | 박해솔 2017.06.07생 父 박영돈 母 홍선진 | 사유진 2017.03.29생 父 사장민 母 두슬기 | 서지니 2017.03.08생 父 서동휘 母 김윤희 | 송리은 2017.08.07생 父 송혁재 母 김채원 | 송민준 2017.05.21생 父 송민건 母 박라영 | 송시윤 아나시오 2013.09.22생 父 송지훈 母 윤선애 | 송유준 2016.06.15생 父 송재용 母 이보람 | 송지아 2016.07.08생 父 송경환 母 송양지 | 신서진 2016.06.29생 父 신상우 母 김재은 | 신유진 도미니코 2015.08.02생 父 신대용 母 신지안 | 심지연 2014.04.24생 父 심무훈 母 강정혜 | 안성준 2008.01.14생 父 안충국 母 방경미 | 안예준 2011.09.08생 父 안충국 母 방경미 | 안진호 사도요한 2016.07.22생 父 안재홍 母 박혜선 | 양재원 스텔라 2012.08.04생 父 양정훈 母 남지수 | 양재호 2013.11.02생 父 양정훈 母 남지수 | 양지원 2014.07.21생 父 양한 母 김보미 | 오선호 2016.09.21생 父 오강민 母 이혜정 | 오지을 레아 2016.05.28생 父 오현준 母 이은정 | 오재민 2016.08.03생 父 오병택 母 강고은 | 오하을 2017.06.28생 父 오일경 母 고영심 | 오해린 캐서린 2017.03.17생 父 오상민 母 김예은 | 우재용 2016.08.01생 父 우승한 母 홍해희 | 원예민 2016.06.14생 父 원정호 母 정보민 | 원지호 2017.04.10생 父 원종식 母 정은경 | 유소연 글라라 2014.06.03생 父 유선영 母 최영경 | 유준 2017.08.09생 父 유병현 母 윤지혜 | 유지승 2016.08.24생 父 유용태 母 이정은 | 윤하영 스텔라 2016.06.27생 父 윤준원 母 김혜정 | 이강민우 베네딕토 2007.03.23생 父 이상민 母 강현주 | 이강민우 아가페 2005.02.15생 父 이상민 母 강현주 | 이다연 샬롯 2016.06.22생 父 이상원 母 강소현 | 이다윤 라파엘라 2012.03.27생 父 이육기 母 김영옥 | 이로운 2016.07.0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 이루하 사무엘 2016.08.17생 父 이석진 母 함원 | 이서아 크레센시아 2015.06.24생 父 이우철 母 신현아 | 이서우 데니스 2016.08.01생 父 이상중 母 김신혜 | 이서원 2017.06.20생 父 이민우 母 허윤선 | 이서준 요한 2015.07.21생 父 이원중 母 이영민 | 이수아 2016.08.09생 父 이준성 母 배민영 | 이시훈 2016.04.28생 父 이병환 母 임소현 | 이아윤 엠마 2016.03.12생 父 이승호 母 이윤서 | 이에서 사비나 2015.01.01생 父 이수원 母 김재연 | 이예진 클라라 2012.08.03생 父 이수원 母 김재연 | 이윤성 2016.07.04생 父 이혁재 母 신지현 | 이윤호 바오로 2013.12.21생 父 이육기 母 김영옥 | 이재원 라엘 2016.07.27생 父 이근형 母 박지나 | 이주하 카타리나 2016.04.18생 父 이선휴 母 박지현 | 이지환 레오 2016.09.05생 父 이서곤 母 김효영 | 이찬희 2016.06.27생 父 이상민 母 강주희 | 이재하 2017.04.26생 父 이주현 母 최민재 | 이태훈 2016.05.14생 父 이경석 母 이희은 | 이하나 마리스텔라 2016.06.26생 父 이주홍 母 민송이 | 이하나 마리스텔라 2016.07.25생 父 이준영 母 최현하 | 이하람 2016.06.24생 父 이종호 母 김인혜 | 이현수 필레몬 2011.03.08생 父 이준성 母 배민영 | 이현을 2016.08.03생 父 이선민 母 문경자 | 이현진 루카 2014.07.03생 父 이응석 母 최지영 | 이환희 2016.06.27생 父 이상민 母 강주희 | 임지원 2016.08.27생 父 임충민 母 고혜영 | 임지한 2012.08.18생 父 임호수 母 이민영 | 강경준 알루치오 2017.03.29생 父 장기영 母 각지윤 | 전서운 2017.05.02생 父 전현를 母 김선희 | 전주한 2017.02.15생 父 전민재 母 이소현 | 정리나 마리아 2016.06.09생 父 정대보 母 김이나 | 정선우 엘리사벳 2011.11.02생 父 정희동 母 최혜원 | 정승윤 에이든 2014.07.10생 父 정현욱 母 이정화 | 정승호 요한바오로2세 2017.03.03생 父 정현준 母 김기쁨 | 정아민 2012.09.11생 父 정승원 母 정문경 | 정아윤 2016.08.01생 父 정진우 母 임이라 | 정아인 2016.04.23생 父 정현호 母 김지영 | 정아인 2016.08.01생 父 정진우 母 임이라 | 정우진 라파엘 2016.09.19생 父 정성욱 母 이현숙 | 정윤호 2016.07.20생 父 정승원 母 이주미 | 정트리스탄 2015.08.04생 父 임채민 母 토살로 이네스 | 조예은 2017.05.04생 父 조진규 母 최미현 | 조하람 2016.07.15생 父 조현우 母 김이나 | 차고은 2017.03.20생 父 차규상 母 고예림 | 최예원 2016.09.18생 父 최현욱 母 정재미 | 최우진 알베르토 2016.09.27생 父 최재훈 母 김호정 | 최윤아 마리아 2014.07.18생 父 최은호 母 서유리 | 최은재 2016.07.07생 父 최창혁 母 전해원 | 최정훈 소피아 2016.06.08생 父 최민서 母 김수영 | 최지우 2016.07.10생 父 최고야 母 차현진 | 탄중 제이든 2017.01.03생 父 탄중 다니엘 母 박레지나 | 하은설 2017.01.28생 父 하창수 母 허현지 | 하윤우 베로니카 2016.08.31생 父 하민준 母 이준영 | 현이든 2017.04.11생 父 현정주 母 이교연 | 호아(태명) 2017.07.11생 父 오민호 母 김미현 | 황서운 스텔라 2015.05.19생 父 황성욱 母 박주영 | 황선재 2014.07.24생 父 황성준 母 최세라

두 번째 기부

고민서 2016.01.05생 父 고윤석 母 성민정 | 권지호 이레네 2015.07.08생 父 권준하 母 김민선 | 김가현 마카엘라 2008.12.03생 父 김종민 母 노미리 | 김규린 프란체스카 2015.06.03생 父 김지수 母 전진령 | 김민서 마리오넬피나 2005.05.01생 父 김형주 母 유소연 | 김민서 클레어 2016.08.12생 父 김현선 母 최지희 | 김서우 2015.06.10생 父 김대중 母 강세훈 | 김수현 마카엘라 2015.06.21생 父 김경모 母 이인영 | 김시은 베드로 2016.07.27생 父 김준식 母 김혜연 | 김연준 사도요한 2013.07.11생 父 김창호 母 남준우 | 김재승 아나시오 2015.06.24생 父 김원섭 母 정미연 | 김재원 마르티노 2015.07.01생 父 김일규 母 최진정 | 김재아 예바 2015.08.25생 父 김홍철 母 이세훈 | 김지유 비비안나 2011.09.09생 父 김동영 母 최은숙 | 김택진 바오로 2015.06.30생 父 김재호 母 이영혜 | 김하은 그라시아 2011.10.10생 父 김용기 母 박유리 | 류다은 프란체스카 2015.05.12생 父 류태경 母 정선혜 | 문채민 2016.07.12생 父 문지호 母 황정원 | 박다예 2015.04.03생 父 박인석 母 신세화 | 박라은 아우로라 2015.08.08생 父 박지윤 母 김채린 | 박성호 2016.04.30생 父 박성산 母 양하나 | 박시현 올리바 2012.04.09생 父 박성준 母 김동연 | 박지우 유스티나 2015.06.11생 父 박성범 母 김현희 | 서수혁 프란치스코 2014.06.30생 父 서동삼 母 이정은 | 손유민 안토니오 2016.06.13생 父 손지희 母 한재현 | 송지호 가브리엘 2014.06.27생 父 송정훈 母 장민희 | 신희준 세레자요한 2012.09.08생 父 신희호 母 노은영 | 안유준 2015.07.24생 父 안충국 母 방경미 | 안정우 루도비코 2015.08.25생 父 안재성 母 이유은 | 양지호 다니엘 2012.08.12생 父 양시훈 母 이연주 | 우다연 보나 2015.08.31생 父 우태석 母 이연이 | 이가윤 안나 2015.07.24생 父 이규연 母 이진미 | 이도현 라파엘 2015.08.05생 父 이문호 母 박진영 | 이서연 2015.08.25생 父 이성진 母 장성희 | 이수운 배아트리체 2012.07.30생 父 이관수 母 이지영 | 이승민 니콜라오 2015.07.09생 父 이도형 母 김희선 | 이사은 2015.07.25생 父 이승철 母



안진호 사도요한



김지유 비비안나



오시현 라파엘



권승후 아론

강혜정 | **이연후 라파엘라** 2015.07.06생 | **이경훈** | **이수진** | **이윤아** 2017.04.21생 | **이상현** | **박민정** | **이준서 다니엘** 2006.08.25생 | **이주훈** | **태은경** | **이준혁 사무엘** 2006.08.25생 | **이주훈** | **태은경** | **이지민** 2015.07.16생 | **이홍세** | **조은영** | **이지민 빅토리아** 2015.07.31생 | **이진욱** | **한아름** | **이지한** 2015.05.26생 | **이정훈** | **김은영** | **이해인 라파엘** 2015.07.06생 | **이경훈** | **이수진** | **임은진 베로니카** 2012.07.11생 | **임정완** | **배수현** | **전해민** 2013.08.03생 | **전준호** | **이지희** | **정하윤 베로니카** 2015.06.27생 | **정찬교** | **최혜진** | **조서윤** 2016.08.09생 | **조영훈** | **전화실** | **조영우 노엘** 2015.12.17생 | **조지현** | **양혜미** | **조준희** 2015.08.15생 | **조성찬** | **권성연** | **조혜울** 2015.11.30생 | **조용운** | **정수란** | **최승채 스텔라** 2014.08.04생 | **최재철** | **박은희** | **최주안 레오** 2016.11.22생 | **최영민** | **김연주** | **하나혜** 2015.04.30생 | **하상우** | **장미선** | **홍지한 베드로** 2016.07.27생 | **우홍술** | **김지연**

세 번째 기부

고다윤 2014.03.08생 | **고용수** | **강현정** | **고주원** 2014.03.08생 | **고용수** | **강현정** | **곽재인 클라라** 2015.08.11생 | **곽규섭** | **조경화** | **곽지우** 2014.09.03생 | **곽익현** | **민영** | **김라온 요안나** 2014.06.18생 | **김동환** | **최수진** | **김민준 프란치스코** 2014.02.06생 | **김호진** | **박주형** | **김서현** 2014.08.06생 | **김태성** | **서민희** | **김재윤 아우구스티노** 2014.06.25생 | **김지경** | **한희명** | **김하은 클라우디아** 2015.08.07생 | **김률** | **문진선** | **김해은 바오로** 2014.06.30생 | **김성훈** | **황하나** | **김현우 사도요한** 2009.07.29생 | **김동희** | **김민정** | **문소현 모니카** 2014.08.27생 | **문성원** | **이아름** | **박시현 바오로** 2015.06.17생 | **박상도** | **윤지혜** | **배수현** 2014.09.04생 | **배재민** | **문이나** | **오서하** 2013.07.09생 | **오재영** | **김은주** | **유승재 파비아노** 2014.08.20생 | **유혁주** | **이교은** | **윤수환 스테파노** 2011.06.17생 | **윤장희** | **문안정아** | **윤여강** 2014.07.03생 | **윤석문** | **김은희** | **윤요한 사도요한** 2008.06.03생 | **윤장희** | **문안정아** | **이도담 리디아** 2013.08.03생 | **강유진** | **장윤** 2013.08.20생 | **장승환** | **주소윤** | **정다인 클로틸다** 2014.09.04생 | **정경후** | **김민선** | **정리우 마리아** 2011.04.27생 | **김대연** | **문정지현** | **정주영** 2015.06.26생 | **정상일** | **문근하** | **조서희 마리아** 2015.02.17생 | **조낙기** | **문조선미** | **현아인 라파엘** 2014.07.14생 | **현정주** | **이교은**

네 번째 기부

권승후 아론 2012.12.21생 | **문준하** | **문민선** | **권아인 이레네** 2014.06.01생 | **문준식** | **최선영** | **김은제** 2013.07.04생 | **김민규** | **이예진** | **김지아 마리아** 2013.07.18생 | **김주한** | **김민희** | **배지호** 2013.07.18생 | **배중성** | **문규현** | **백준열 아우구스티노** 2013.08.21생 | **문익환** | **문진민경** | **심을** 2013.08.14생 | **심현보** | **문지은** | **엄정훈** 2013.06.19생 | **엄준용** | **박은정** | **엄호준 세례자요한** 2013.06.17생 | **엄동훈** | **이하림** | **윤주미 마리아** 2013.06.12생 | **윤준근** | **문이정** | **윤혜림 마리아** 2013.06.04생 | **윤형준** | **문양선영** | **이서울 에스텔** 2012.07.23생 | **이선민** | **문경자** | **이수하 클라라** 2014.10.07생 | **이상준** | **문김희경** | **이윤재** 2014.09.12생 | **이대근** | **문윤기** | **이하은** 2013.07.16생 | **이종호** | **문임혜현** | **이현우 가브리엘** 2013.06.27생 | **이봉원** | **문지은** | **임혜아** 2013.08.06생 | **임상우** | **문서유나** | **정현진 베드로** 2012.06.26생 | **정준호** | **문기나** | **차규림 크리스티나** 2013.03.28생 | **차규상** | **문고예림** | **차은아 페트루** 2015.06.29생 | **차원철** | **문최서연** | **한스텔라 스텔라** 2012.08.20생 | **문파재환** | **문한소진** | **한원준 아우구스티노** 2012.08.28생 | **문한창환** | **문이미지**

여덟 번째 기부

고민을 2015.06.11생 | **문고영미**

열한 번째 기부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08.20생
조남현 | **문김자영**

열다섯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이중수 | **문박우정**

죽일 기부

류홍인 베드로
최성욱 헬레나

아홉 번째 기부

김동하 다니엘 2008.08.04생
김중영 | **문조익희**

열두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김성락 | **문박민정**

생일 기부

이나래 소피아 1982.04.16생
장은진 루피나 1986.07.13생

아름다운 커플의 기부

조현민 마오스딩 & 안선민 리디아
7주년 기념

다섯 번째 기부

고은혜 스텔라 2013.05.19생 | **고재우** | **문김이수** | **권태리 미카엘라** 2012.06.22생 | **문권혁재** | **문이수경** | **권태린 가브리엘라** 2012.06.22생 | **문권혁재** | **문이수경** | **김연아 엠마** 2012.06.29생 | **김호진** | **문박주형** | **김요한 세례자요한** 2007.06.18생 | **문김건수** | **문백미영** | **서민지 마리스텔라** 2012.07.17생 | **문서영부** | **문이정은** | **신지섭 대건안드레아** 2013.07.01생 | **문신동일** | **문박수민** | **오시현 라파엘** 2012.06.25생 | **문오강민** | **문이혜정** | **문요운 안드레아** 2009.06.07생 | **문오세훈** | **문송지혜** | **문유서진 에스더** 2012.08.10생 | **문유혁주** | **문이교은** | **문윤분도 베네딕도** 2013.07.05생 | **문윤장희** | **문안정아** | **문윤혜정 엔다** 2012.03.08생 | **문윤형준** | **문양선영** | **이가은 스텔라** 2012.08.31생 | **문이규형** | **문김윤희** | **이승수 스테파노 반델리** 2012.06.13생 | **문이종현** | **문김희선** | **이윤영 안나** 2012.08.31생 | **문이대근** | **문윤기연** | **이종현 대건안드레아** 2012.08.27생 | **문이인기** | **문이우영** | **이하엘 크리스티나** 2012.07.24생 | **문이경인** | **문홍혜림** | **문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 **문임치환** | **문민지혜** | **문조유슬** 2011.08.05생 | **문조창완** | **문최윤정** | **문한서준 스테파노** 2010.06.24생 | **문한정환** | **문이혜진** | **황송현** 2012.08.28생 | **문황준하** | **문황윤진**

여섯 번째 기부

김유현 프란치스코 2012.07.29생 | **문김도연** | **문류미숙** | **문신은규 그레고리오** 2012.08.14생 | **문신중현** | **문이윤주** | **문이아람** 2016.01.19생 | **문이중수** | **문박우정** | **문장수아** 2011.06.01생 | **문장진성** | **문이정화** | **문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생 | **문전진** | **문홍은주** | **문한승우 라파엘** 2010.07.29생 | **문한상훈** | **문김주연**

일곱 번째 기부

고영훈 요한 2013.04.13생 | **문고윤석** | **문성민정** | **문김성운** 2012.06.27생 | **문김주한** | **문유효빈** | **문김영선** | **문소피아** 2010.07.24생 | **문김병욱** | **문이수희** | **문김영준** | **문미카엘** 2010.07.24생 | **문김병욱** | **문이수희** | **문김예운** 2012.06.27생 | **문김주한** | **문유효빈** | **문이지인 에스텔** 2011.07.13생 | **문이윤준** | **문우혜영** | **문조서현 베드로** 2010.06.19생 | **문조낙기** | **문조선미** | **문홍은진 마리아** 2010.06.15생 | **문홍원표** | **문박선영** | **문황지은 아녜스** 2010.03.05생 | **문황상묵** | **문김현수**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문영호 사도요한 & 문승진 에스텔 결혼2주년 | **문김명규 & 문최인경** | **문미카엘라** 결혼5주년 | **문김성래 라파엘 & 문홍순애 헬레나** 결혼25주년 | **문김성환 요셉 & 문오미영** | **문모데스타** 결혼기념 | **문박상춘 니콜라스 & 문주라영** | **문글라라** 결혼16주년 | **문빈센트** | **문들로** | **문아브라함 & 문김태희** | **문소화데레사** 결혼1주년 | **문안건형** | **문폴로렌시오 & 문피자경** | **문폴로렌시아** 결혼14주년 | **문유정균** | **문요셉 & 문황선정** | **문데레사** 결혼2주년 | **문이상구** | **문프란치스코 & 문김영옥** | **문글라라** | **문철순기념** | **문이재관** | **문로베르도 & 문미경** | **문스텔라** 결혼11주년 | **문정양호** | **문요한보스코 & 문김영순** | **문헬레나** 결혼43주년

감사 기부

김옥민 안나 | **문방경미** | **문손예슬** | **문이사벨라** | **문안충국** | **문이근우** | **문대건 안드레아** | **문첫 월급** | **문기념** | **문이여주** | **문베로니카** | **문떠앗누리23기** | **문활동** | **문감사** | **문이정원** | **문프란치스코** | **문첫 내집** | **문장만** | **문기념** | **문홍관표** | **문베네딕도** | **문성모승전대축일** | **문기념**

사랑가득 공동체의 기부

문계성초등학교 | **문첫영성체반** | **문구의동성당** | **문첫영성체반** | **문삼성동성가정성당** | **문첫영성체반** | **문서울애화학교** | **문한강성당** | **문첫영성체반** | **문화국** | **문2동성당** | **문중고동부** | **문주일학교**

고인을 기억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기부

문김을규 | **문사비나** | **문노동현** | **문마테오** | **문임혜진** | **문마리스텔라**

한마음한몸 새 소식

1 자살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슬픔돌봄 피정] 개최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지난 9/13(수)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지역 피정의 집에서 자살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피정을 개최했습니다. 피정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온전히 고인을 생각하며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자살로 떠나보낸 후 마음 놓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실컷 울어보았습니다”, “신부님, 수녀님과 면담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개최



자살예방센터는 8/31(목)~9/1(금) 양일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자살예방협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센터는 행사 기간 꽃과 캘리그래피가 담긴 엽서, 마음을 위로하는 책갈피 등을 마련해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한편, 응원을 전하는 족적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틈틈이 부스에서 엽서에 글을 써 가족에게 전하거나 액자를 만드는 등 자살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3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



2017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이 7/21(금)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부와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가 함께 실시한 이번 워크숍에는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9개 교구 생명운동 실무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각 교구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재)바보의나눔 공모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교구의 생명운동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4 2017 세계인도주의의 날 공동 캠페인 참여



매년 8/19은 세계 곳곳의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는 세계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총 25개 단체가 함께 ‘Humanitarian, I am!’이라는 주제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본부의 인도적 지원 이야기, 본부와 협력하는 케냐카리타스 직원의 인터뷰를 함께 나누고 개막행사(8/6)와 토크콘서트(8/19)에도 참석하였습니다.

5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23기



띠앗누리 23기가 지난 8/14(월)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 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23기는 빈곤, 인권, 환경, 연대성을 주제로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7/24(월)~8/8(월)까지, 15박 16일 동안 네팔 카트만두의 따레빌 학교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8/14(월)에 국내 체험활동 및 해단식을 끝으로 전 단원이 건강하게 모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6 '생명나눔! 사랑나눔! 생명콘서트' 개최



7/1(토)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마산교구 내 장기기증희망등록자들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나눔! 생명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산교구 가정사목국과 함께 시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1부 생명존중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2부 장애인 단체의 핸드벨 연주 및 연극공연, 가수 김태원씨 부부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웃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7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7/19(수) 서울 길음중학교, 8/30(수) 안성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인권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 환우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7. 7~9. | 단위: 만 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장00	간모세포종	국립암센터	1,000
조00	신장이식	조선대학교병원	800
조00	신장이식, 만성신장부전	세브란스병원	1,000
심00	급성백혈병	서울대병원	900
양00	혈액암	서울아산병원	900
별0	뇌전증(간질) 지속	아주대학병원	500
안0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좌상	목포한국병원	700
한00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300

SNS로 보는 나눔 이야기



좋아요 14개

veridis.quo_ #조혈모세포기증 #감사장
#생일선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일날 받은 축하인사와 선물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 역시 뜻깊다. 이식이 잘 되었는지 소식이 너무 궁금하다.



좋아요 46개

annmmi 2주년은 외식없이 집에서 조출히 (겁나 푸짐하게) 먹고서 365일 x 4년 x 100원 = 146,000원 의미있게 나는 것으로 크게 만족, 감사♥#서촌 #육인동살이 #결혼기념일 #2주년 #토마토해산물스튜 #와인 #마늘바게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안내

① 정기후원

지로자동이체(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소식지에 동봉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월 1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지로납부

지로번호: 7522277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횟수를 격월,
분기, 상하반기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후원

계좌이체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신한은행 140-001-982286
KEB하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신용카드, 휴대폰

www.obos.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060-700-1117
위 ARS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이 사용하시는 전화요금에서
결제됩니다.

문의 02)727-2285 | 02)727-2288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